

# 광주시장 '3자 단일후보' 강기정 확정



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4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강기정 후보로 단일화 기자회견을 한 뒤 손을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가 3자 단일후보로 강기정 전 의원을 확정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 측은 4일 "여론조사와 숙의배심, 세 후보의 최종입장을 종합한 결과 강기정 전 의원을 3자 단일후보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세 후보 진영은 지난 1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곧바로 1~2일 2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시민사회단체

## 시민사회 숙의배심+ 여론조사+ 3자 합의로 결정 시민공동정부 전환촉 가동, 2인 공동위원장 체제

숙의배심원 22명의 논의를 거쳐 단일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강 후보는 선언문을 통해 "민형배, 최영호 후보의 통 큰 결단으로 광주정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세 후보가 불꽃을 틈 변화의 불길이 거대한 강물이 돼 광주를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민공동정부 깃발 아래 세 후보가 고민이 많았다. 구호나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실질적 변화의 불길이 광주를 바꿔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겠다"며 "과거에 간헐 채 담보 상태에만 머물러 온 광주를 현재진행형으로, 더 희망에 찬 미래형으로 새롭게 약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광주정신인, 5·18가치가 남은 시대의 규범이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라는 시대가치에 헌신했던 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시대정

신인 '광주 성장',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제 제 이름은 '최·강·민주 단일후보'이고, 새 역사의 파트너로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단일 후보+ 2인 공동위원장 체제', '시민공동정부 전환위원회 가동'을 골자로 한 통합 캠프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분권·혁신·민주·성장을 4대 가치로 ▲시민시장 ▲협치 시장 ▲소통 시장이라는 시민공동정부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후보 측은 "단일화에 합의한 세 후보는 조만간 강 후보 사무실에 통합 캠프를 차리고,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는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며 "공약개발과 선거운동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 전남지방선거 경쟁률 1.66대 1

기초단체장 70명 · 광역 113명 · 기초의원 290명 등 473명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후보 경쟁률이 1.66대 1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계호)은 3일 오후 6·13지방선거 후보 공모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89명 정원에 473명이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마감 결과 기초단체장은 22명 정원에 70명이 공모해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광역의원은 52명 정원에 113명이 신청해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흥군 제선거구가 5대1로 가장 치열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의원은 211명 정원에 290명이 신청, 1.37대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훈)는 오는 7일 의원정수 이내 지역 심사와 면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순천, 실력·경험 갖춘 시장 필요"

조춘훈 순천시시장 지방선거 출마 선언...3선 도전

조춘훈 순천시장이 4일 6·13지방선거 순천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시장은 민선 5기 때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민선 6기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번엔 3선을 위한 민선 7기 순천시시장에 출마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믿고 맡기는 지방정부, 성공의 보증수표 '순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대한민국 생태와 정원의 대표 도시를 완성해 온 순천시가 성공의 신화를 지속해서 순천만잡월드건설, 제4차 산업혁명 박람회 개최 등으로 제2의 도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어느 때보다 실력 있는 시장, 경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라며 "힘들게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지어야 일관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순천의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57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잡월드,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정원산업

웹툰산업 등 4년간 모두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일자리 많은 경제 중심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또 아이와 여성,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원하고 이웃을 챙기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 세상 건설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윤러 모든 국민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생태 나라 순천'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미래 직업 체험장과 순천만잡월드, 청소년 진로체험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의 자치주권 강화와 경제적 보장을 위해서 주민세를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하고 일 년에 한 번 시민이 광장에 모여 토론하는 직접 민주주의 축제도 마련한다. 이는 전 시민이 주권자로 함께 만드는 자치순천을 구현하겠다는 평소 뜻과 '더불어 사는 균형도시 건설'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현직 불출마 · 3자 단일후보 광주시장 선거 '격랑'

윤정현 시장, 숙고 끝에 불출마 결정 '3자 단일 후보' 강기정 후보로 확정 민주당 경선 '姜·李·梁' 3파전 예고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광주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지닌 윤정현 시장이 출마선언 옛세 만에 불출마로 급전회하고, 민주화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한 여권 50대 주자 3명이 단일 후보를 선출한 뒤 통합 캠프를 꾸리기로 하는 등 경선 초반 선거판에 격랑이 몰아치고 있다.

여당 후보가 압축되는 가운데 야당 측도 출전선수 선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4월 하순부터는 본선거판도 본격적으로 달아올 것으로 보인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4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시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주정신의 계승과 함께 올바른 미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8월 지방선거에 불출마하는 대신 시민시장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 민선 6기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출마선언을 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지 불과 엿새 만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지 후보를 공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정신 계승'과 '새로운 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을 들어 지역정계에서는 386 민주화 진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3자 후보연대 측도 단일후보를 결정했다.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 측은 여론조사와 숙의배심, 세 후보의 최종 입장을 종합해 강 전 의원을 3자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했다.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세 후보 진영은 지난 1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뒤 곧바로 1~2일 2개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시민사회단체 숙의배심원 22명의 논의를 거쳐 단일후보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때 7명에 달했던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3자 단일후보인 강 전 의원과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양

항자 최고위원, 이병훈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등 4명으로 좁게 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차 압축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최종 논의를 거쳐 5일 경선 예비후보(컷오프 통과자) 명단과 경선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선은 컷오프에 이은 본 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로 진행되며, 공판위는 당선 가능성(30), 면접(15), 정책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5), 도덕성(15)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여기에 본인이 최우선한 점수에 여성(15%), 당대표 1급 포상(10%), 65세 이상 고령자(10%) 등 가·감산 조항을 더해 최종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4인 경선은 당규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상 강기정, 이용섭, 양항자간 3자 대결이 유력하다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각 후보 진영은 1대 1 구도로 치러질 결선투표에 대비해 경선 유권자인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확보하고, 불출마 후보 진영의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강 후보는 민형배, 최영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통합 캠프를

가동하며 지방공동정부 구상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 후보는 좁은 유지해온 지지율 선수를 사수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양 후보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 정치적, 경제적 변방인 광주에서 최초로 여성 광역단체장을 목표로 일로매진하고 있다.

강 후보는 단일화 효과로 지지율이 20~30%대로 오를지, 이 후보는 측근들이 연루된 당원 명부 유출사건을 극복하고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할지, 양 후보는 신선함과 스토리텔링을 앞세워 돌풍이 주역이 될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오는 20일 이내 지역 내 명망가를 시장 후보로 추대하기 위해 예비지 역인 작업을 벌이고 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이달말께 중랑감 있는 인사를 시장 후보로 끌어들이기 위해 당력을 모으고 있어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는 4월 넷째주를 전후로 본선거전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불과 며칠 사이에 양자 단일화, 3자 단일화, 현역 시장 불출마 컷오프 등 굵직한 일들이 잇달아 터져 큰 틀에서는 교묘정리가 되고 있지만 내외 부적으로는 더욱 세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돼 선거전이 한층 달궈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